

대구주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2014. 9. 21. (가해) 제1909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http://www.daegujobo.or.kr



신나무골 - 순교자 이선이 엘리사벳 묘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6 참조)

지난달에 우리는 103위 한국 순교 성인에 더하여 124위 순교 복자를 모시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성인이나 복자로 선포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는 영광이 더하여지는 않지만, 후손된 우리에게는 큰 자랑인 동시에 무거운 숙제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범에, 후손은 선조의 업적에 비겨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한 목숨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제1독서 지혜 3,1-9

제2독서 로마 8,31-39

복 음 루카 9,23-26

입 당 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들을 찬양하네.

화 답 송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박수태 비오 신부 | 남산본당 주임

사는 길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가 물어 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고, 아니면 “살아 있으니 산다.”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으며, “왜 죽기 위해서 사느냐?”고 물으면 ‘살기 위해서 죽는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을 죽이면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죽일 때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4)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강론에서 이런 말을 하려니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고스톱을 쳐 보면, 화투만 쥐면 ‘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칭 ‘불나비’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사람들치고 따는 것을 본적이 잘 없습니다. 고스톱에서는 얼마나 잘 죽을 줄 아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죽고 살 패를 정확히 읽을 줄 안다면 기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살기도 제일 잘 죽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주보를 보시는 분들 중에 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초보자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멋진 아내, 멋진 남편, 멋진 친구는 서로에게 저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몸 바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

른 말로 ‘순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죽음... 어떠한 피조물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 사랑에 힘입어 이겨내고도 남는다고 합니다(로마 8,35-39 참조).

오늘 축일을 지내는 우리나라의 순교성인들은 이러한 것을 몸소 세상에 드러내신 분들이십니다.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께서서는 옥중 서간에서 하느님을 ‘임자’로 표현하시면서 “임자를 모르는 것은 세상 삶의 보람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배신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의미와 사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은 ‘멋진 사랑’을 하는 것인데 곧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1독서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8월 16일 한국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모시고 순교자 124위를 복자품에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늘 순교성인들의 삶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순교성인들이여,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순교자성월 특집

“목숨을 내어놓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

순교자(殉敎者, Martyr)는 본래 ‘증거자’라는 뜻으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월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으로, 한국 순교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이 9월 20일이고 또 103위 성인 중 서른 세 분이 9월에 순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신앙 때문에 공적으로 박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는 순교를 하지는 못하지만,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 준 선조들의 순교정신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신앙이 전래되었을 때, 10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혹독한 박해로 만 명이 넘는 신앙 선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103분이 지난 1985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방한하시어 집전하신 시성식에서 성인품에 오르셨고 지난 달 8월 15일에는 초기 순교자 124분이 또 다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시어 집전하신 시복식에서 복자품에 오르셨는데, 교황님께서 직접 순교자들의 나라를 방문하시어 시성식과 시복식을 모두 거행하신 것은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는 선교사도 없이 평신도들이 스스로 복음을 찾아 신앙 생활을 시작한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가 또한 세계에 둘도 없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은 대부분 평신도였고, 성직자도 모시지 못하고 미사참례도 거의 할 수 없으며 성경도 고상도 목주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가문이나 벼슬, 재물과 건강, 심지어는 가족들과 자기 생명조차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가깝다는 것을 이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순교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본받는 것이므로, 신자가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 중에서도 가장 큰 봉헌이고 극에 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느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이가 은총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순교자들의 후손인 우리가 목숨을 단번에 주님께 바치지는 못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5분, 한 시간, 하루를 주님을 위해 바치고 작은 불편을 신앙 때문에 참아 견디며 비록 어렵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내 것을 양보할 줄 안다면, 우리도 작은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의 말만 듣고는 쉬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뛰어난 방법입니다. **김종민**



걸그룹들의 섹시 열풍

조재근 마르코 신부 | 동춘본당 보좌

걸그룹이 나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을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볼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여주는 무대는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19금 빨간딱지가 붙어 있을 법한 비디오 수준도 제법 됩니다. 벗은 것에 가까운 야한 옷차림은 기본입니다. 침대가 곧잘 등장하는가 하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안무까지, 거기에서 노래 가사는 또 어떻습니까? 가요계 걸그룹들의 선정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요즘 걸그룹들은 왜 섹시 컨셉을 내세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돌 시장의 극심한 경쟁에서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몇 년 전에 비해 활동하는 걸그룹 가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쁜 얼굴에 노래를 잘 부르지만 해서는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힘듭니다. 튀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획사는 짧은 순간에 대중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섹시' 컨셉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그룹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세대는 대부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섹시한 의상을 입고 나오는 걸그룹 중에는 10대들도 상당수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뮤직비디오를 즐겨보면 무의식 속에 그릇된 성(性)의식을 갖게 되지 않겠

습니까? 상업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들이 성장할 때 좋아하고 즐겨 불렀던 시(時)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의 노래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몇 년 전 신앙학교 때에 흘러간 가요를 흥얼거리며 부르는데, 고등학생 한 아이가 “이런 노래도 있어요?”, 너무 좋다며 그날 이후 그 노래를 다운 받아서 즐겨 듣는다고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흘러간 가요를 듣고 “옛날 노래들은 가사도 참 좋네요. 대단히 시적인 것 같아요.”라는 반응들을 보이며 좋아합니다.

선정적인 영상을 보면 뇌리에 남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극적인 노랫말 역시 그렇습니다. 어릴 때에 외운 노래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합니다. 문학 같은 삶이 담긴 노랫말을 많이 외워둔다면 그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봄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강둑길을 걸으면 절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르게 될까요? 어떤 노래 가사를 읊미하며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기게 될까요? 또한 청소년들이 대중가요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가들을 많이 듣고 부르고 삶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흥얼거리며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문**



단장(斷腸)



한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뛰어난 활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은 산속에서 사슴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어미 사슴, 하나는 아기 사슴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화살을 집어 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기 사슴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찾고 있자니 새끼 사슴에 박힌 화살을 뽑아보려 안달하던 어미 사슴이 이윽고 기운이 다한 듯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군? 어미 사슴에게는 화살을 쏘지도 않았는데?’

의아하게 여긴 사냥꾼은 어미사슴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미사슴의 창자는 조각조각 잘라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눈물을 흘리며 활과 화살을 부러뜨리고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장(斷腸), 깊은 슬픔은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필독**

금주의 성인

9월 21일	성녀 마우라(동정녀, 트루아, 850년경), 성 마태오(사도, 복음사가, 순교자, 1세기경) 성 이사치오(주교, 순교자, 키프로스), 성 팜필로(순교자) 성녀 이피제니아(마태오의 제자, 동정녀, 1세기경)
9월 22일	성 마우리시오(군인, 순교자, 아가우눔, 287년경), 성 상티노(주교, 뮤, 300년) 성 엠메라모(주교, 푸아티에, 7세기), 성 이라이스(동정 순교자, 300년) 성 토마스(대주교, 빌라노바, 1488~1555년), 성 펠릭스 3세(교황, 530년)
9월 23일	성 리노(교황, 순교자, 79년), 성 비오(신부, 피에트렐치나, 1887~1968년) 성 아담난(수도원장, 저술가, 이오나, 624~704년) 성녀 테클라(바오로의 제자, 동정 순교자, 이코니움, 100년경) 성녀 크산티파(사도들의 제자, 동정 순교자, 1세기말)
9월 24일	성 티르수스(부제, 순교자, 2세기), 성 파치피코(신부, 산 세베리노, 1653~1721년)
9월 25일	성 세르지오(신부, 수도원장, 설립자, 라도네즈, 1314~1392년) 성 피르미노(주교, 순교자, 아미앵, 4세기 초), 성 핀바르(주교, 수도원장, 코크, 633년경) 성 클레오파(신약인물, 예수의 제자, 순교자, 1세기), 복자 헤르만(수사, 1013~1054년)
9월 26일	성 고스마(의사, 순교자, 303년), 성 닐로(수도원장, 로사노, 910~1004년) 성 다미아노(의사, 순교자, 303년), 성녀 유스티나(동정 순교자, 3세기경) 성 치프리아노(주교, 순교자, 안티오키아, 3세기경)
9월 27일	성 빈첸시오 드 폴(신부, 설립자, 1581~1660년), 성 엘지아르(3회원, 1285~1323년) 성 힐트루다(수녀, 790년)



■ 도원성당 견진성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9월 14일(일) 오전 11시 도원성당에서 255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대구대교구 공식 스마트폰 앱 1.1 버전 안내!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편의기능을 갖춘 교구 스마트폰 앱 1.1 버전을 배포합니다.



업데이트 내용

1) 메인 메뉴 3종 추가

- ① 월간빛 – 빛잡지 기사 월별 검색
- ② 기도문 – 가톨릭 기도서의 기도문과
특수지향 기도문 수록
- ③ 평화방송 – 실시간 대구평화방송 라디오
청취(W-Fri 환경에서 청취 권장)

2) 교구사제 검색에 서품년도별 검색 기능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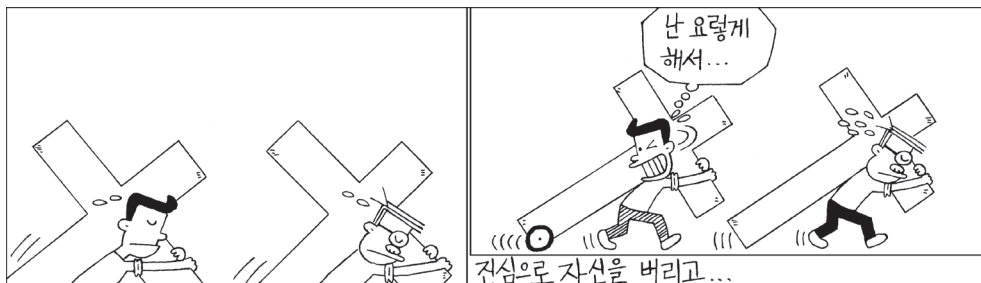
3) 푸시알림 수신 기능 추가

4)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기능 추가

5) 서비스 문의 및 버그 신고, E-Mail 발송 기능 추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박성규 엘리지도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22일(월) 11:00 도량성당		9월 23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22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9월 24일(수) 10: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9월 22일(월) 11:00 수성성당		9월 24일(수) 14:00 토마스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23일(화) 14:00 계산성당	바뇌기도회 월례미사	9월 25일(목) 14:00 삼덕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24일(수) 10:00 평화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미사	9월 25일(목) 19:00 교구청별관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9.27(토) 14:00

장소: 예수회 관구본부(서경대학교 옆)

주제: 정의와 평화, 그리고 투신의 삶

문의: (010)9981-1208

www.facebook.com/becomingJesuits

2박 3일 무료 피정(작은예수회)

기간: 9.26(금)~28(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데레사, (010)2646-0583

행복을 위한 여정

기간: 9.27(토) 15:00~28(일) 15:00

기간: 10.3(금)~4(토) / 10.18(토)~19(일)

대상: 여성 누구나

신청: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9056-9005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피정)

기간: 10.3(금)~5(일), 부산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주최: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문의: (010)9319-1690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0.3(금) 17:30~5(일)

4박 5일: 10.20(월) 14:00~24(금)

8박 9일: 9.22(월) 14:00~30(화)

문의: (031)946-2337~8

교육 | 모집

자연 in 베네딕도 청년 축제

기간: 9.27(토)~28(일)

장소: 톡쥬교성베네딕도회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살레시오 국제청소년자원봉사단 모집

일시: 2015.14~18 / 장소: 캄보디아 포이엣

대상: 중3~대학생 및 20대 청년

접수: sycenter.ne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문의: (042)584-0654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11.13(목)~27(목) 14박 15일

장소: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프랑스, 스페인

가격: 발코니 568만 원(내측/오션뷰 마감)

※공동경비 및 선내팁 포함

문의: 428-5004, www.cttour.org

성모기사회(작은꽃모임) 회원 모집

일시: 매월 세번째 토요일 19:00

장소: 프란치스코눔

대상: 20세 이상 청년 누구나

문의: 최한수(알베르토), (010)7169-1671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시 서구, 문의: (032)280-1500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 하는 순례

일본순례: 4박 5일, 순교자들 발자취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중국순례: 3박 4일, 소주, 상해

주문모·김대건·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

문의: 성모승천수도회, (02)778-5100

제45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모집

초·중·고: 1.4~2.22(3, 5, 7주 선택)

가톨릭계학교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수업

대.일반: 1.4~2.15(6주·장기)

주관: 마 신부님(Rev. 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물동줄, 민속줄
고가 매입
문송갤러리 김 대 윤 (요셉)
위치 : 건들바위 네거리(무료감정)
☎ 053)474-3050

유방·갑상선 전문 여의사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정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합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맥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입/성장(식육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김 성 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애니타워 4F

스피치 토크 일의 가장 핵심이다
Speech Kim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바니)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마오로) 011-514-3855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최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2015학년도

베드로관(小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 공동체 생활, 학업은 무학고등학교(경북하양소재) 재학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keyofpeter@naver.com

행사 | 모임

고령 본당 50주년 기념 음악회

일시: 9.27(토) 19:00

장소: 고령군 국악당

교육 | 모집

29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10.11~11.16(매주 토) 15:00~21:00

※10.25(토)은 본당사정으로 휴강

장소: 2대리구 옥수성당 / 15만 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2014년 가을 젊은이 성령 세미나

기간: 10.3(금)~5(일), 월막피정의 집

선착순: 청년 40명, 참가비: 8만 원

문의: (010)8678-2961

성모 신심 세미나

일정: 10.1부터 7주간(매주 수) 14:00~17:00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신청비: 3만 원 (교재비, 수강료 등)

주관: 파티마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접수: 세나투스, 256-3574 / (010)7173-1698

124위 시복과정과 영성강좌

일시: 9.29(월) 14:00~16:0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대회의실

강의: 서준홍(마티아) 신부

회비: 없음

신청: 교구 여성위원회, 254-6115

제20기 뿌에리 칸토레스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평신도신학교육원 신학 성경 수강생 모집

교회론, 미사와 가톨릭신앙, 철학, 여성학, 그리스도교미술, 성경인물40인, 부모교육, 복음의기쁨, 신앙 역사와 문화, 수도원순례, 신구약성경과정, 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통기타, 플룻, 우쿨렐레(성인, 어린이) 바이올린, 오카리나, 초크아트, POP 토펙인팅, 백세건강 / 문의: 476-6211

새빛학교 기초 영어, 한문반 모집

영어교실: 매주 화, 목 13:00(주2회)

한문교실: 매주 화요일 15:00 (주1회)

문의: 교무실, 476-3100(지하철교대역)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수강생 모집

시네마와 영상: 10.1(수) 13:00

동화구연2급자격과정: 10.6(월) 10:00

천연화장품제조법: 10.6(월) 10:00

제대꽃꽂이, 꽃꽂이: 10.10(금) 10:00

문의 및 신청: 254-6115

관덕정 주관 10월 성지순례

일자: 10.19(일), 원주교구 풍수원성당

신청: 9.24(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채용 | 안내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 운동본부

각 본당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사랑을 전해주세요. 집에 방치된 옷가지들을 수거함에 채워 온정의 손길을 전합니다. 수익금은 해외난민사업지원 및 어려운 이웃과 장애학생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문의: 555-4846 / 253-9991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 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도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은주(테레사), 김동한(미카엘)

황은진(요한군구)

문의: 253-9550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추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는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코비한의원
대구수성점
대표원장 이 판 제(루카)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일본 성지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4월) / 오이타, 유우인 (4월)
※ 출발일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조 월 래(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